

일본의 산촌유학을 통한 도농교류의 실태 및 국내적용 가능성 모색

정 환 영*

Urban-Rural Exchange through Rural-studying Programs in Japan and its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Korea

JEONG, Hwan-Yeong*

요약: 최근 도시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산촌유학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일본의 산촌유학 사례를 통하여 도농교류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일본의 산촌유학 교육프로그램에는 전체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하고, 지자체와 마을 그리고 지역학교와의 연계가 잘되어 있다. 현재 산촌유학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실행되는 곳이 있으나 성공하고 있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산촌유학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촌유학학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귀농을 유도하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 확립에 힘써야 한다. 또한 농가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지원과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로는 산촌유학제도의 법제화, 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 지역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주요어: 산촌유학, 도농교류, 농촌개발

Abstract: In recent time, rural-studying programs have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promoting exchang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ill be to take a look at such exchange activities through the study of cases involving rural areas using it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e research will also consider the implications resulting from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in Korea. According to a Japan's rural-studying program, there was a whole family participation and there was cooperation between the school, village and the local government. There are some domestic places that applied this program, but only a few are successfully being implement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application, building network systems between rural-studying schools will be vital. So will be the building of critical infrastructure to induce the return to farming and the establishment of assistance institutions. Also, visible assistance towards farms in rural area and conversion of recognition upon exchange activ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will be necessary. Legislation of rural-studying program,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ssistance ordinance and continual education to local inhabitants will be central to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Key Words: rural-studying programs, urban-rural exchange, rural development

1. 서론

최근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는 교통체증, 자연녹지공간의 부족과 환경오염, 스트레스의 일상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농촌 지역의 인구와 학생들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도시 지역 학교의 과밀화 및 거대화가 일어났다. 또, 조기 유학, 교육서비스 개방 등의 문제로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반면, 농산촌은 DDA협상, FTA확대, 경제블록화 등으로 농림업인의 경제사정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어 농산촌 지역 취학아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농산촌학교의 규모도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각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정책추진과정 및 결과에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보다 경제 논리에 근거한 통·폐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학생들은 통합학교로의 통학거리와 비용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농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kyjeong@kongju.ac.kr)

촌지역의 유일한 공교육 기관이자 마을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를 잃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소외의식을 느끼게 되고 지역의 활기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최지훈 등, 2008).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산촌유학을 통한 도농교류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진정한 교육에 관해 고민하였고, 현재 아름다운 학교의 꿈을 실현시킨 산촌유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산촌유학을 통한 도농교류를 활발히 진행시킴으로써, 농촌의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적 활력, 농의소득, 농산물의 판매를 통한 소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도시의 경우에는 여유로운 여가활동, 전통과 문화체험 및 교육, 안전한 농산물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교류는 상호관계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다(한상열, 2005).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광역적으로 네트워크화하여 활용하자는 관점에서 산촌유학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도농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대안으로 산촌유학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농교류 차원에서의 산촌유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의 초등·중학교의 통·폐합문제의 대안으로서 산촌유학을 연구하였는데 신정희(2005)는 일본과 한국의 농·어촌 폐교 대응 정책을 비교하고 폐교문제의 대안으로서 산촌유학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지훈·장우환(2008)은 일본의 산촌유학 사례를 통해서 국내 산촌유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비해 도농교류의 현황분석(한상열, 2005; 송미령, 2003)이나 도농교류의 활성화 방안(문영섭, 2007; 이상엽, 2003; 이용대, 2007)에 대한 연구는 산촌유학의 연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일본의 산촌유학 사례를 통한 도농교류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적용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재 일본과 국

내의 산촌유학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일본의 산촌유학을 통한 도농교류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산촌유학의 운영 방법 및 운영 실태, 도농교류 현황을 조사한 후 국내 사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산촌유학을 통한 도농교류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일본의 산촌유학

1) 일본 산촌유학의 출현 배경 및 산촌유학의 형태

일본의 산촌유학은 1976년에 나가노현(中野県) 오오마치시(大町市) 야사카초(八坂町)에서 소다테루회(育てる会)의 교육 실천 활동으로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소다테루회는 1968년에 청년 사회교육 단체로서 설립된 이래, 가정교육, 사회교육,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호소하면서 「도시화 사회의 청년에게 풍부한 자연체험을」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소다테루회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체험이 야말로 그들의 개성·특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전국각지에서 여러 가지 자연체험 교육활동을 실천해 왔다.

설립 당초의 주된 활동은 주로 학교 방학기간 중의 야외 활동이었지만, 그 내용은 농가에 1주나 10일간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또, 농촌 지역주민이 농가의 「아버지·어머니」가 되고, 때로는 「자연속의 선생님」이 되어 자연 속에서 농촌을 경험하고 땅에서 길러진 문화나 생활의 지혜 등을 아이들에게 체험시킨다는 시점에서도 유례없는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당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고, 전국의 많은 아이들이 활동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매년 반복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체험의 폭을 보다 넓히고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없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보호자들이 「1년간 소다테루회에 아이를 맡겨 자연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시켜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무교육 기간 중의 학생이 부모 곁을 떠나 산촌에서 생활한다는 생각이 당시로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방학 중에 실시하는 활동만으로는 사계절을 배경

으로 한 농촌의 여러 가지 일을 체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양질의 체험과 폭넓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하려면 장기간의 산촌유학이 필요하였다. 당시 활동의 거점지였던 나가노현 야사카쵸의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절충을 도모한 끝에 제도적으로는 장기산촌유학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고, 소다테루 회에서도 참가학생을 모집하였는데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9명의 초중학생이 산촌유학의 제1기생이 되었고 이것이 일본 산촌유학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 후 산촌유학이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참가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의 심신도 성장하였고, 교실의 활기가 넘치는 등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또 지역에 있어서 학교활성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 보호자간의 지역을 넘어선 교류, 지역자원의 재발견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나타났다. 야사카마을에 많은 지자체가 견학을 오며 산촌유학을 실시하는 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아이들이 이것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산촌유학은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산촌유학은 산해(山海)유학, 농촌유학, 고향유학, 전원유학, 해변유학 등 유학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운영조직, 거주형태, 산촌유학기간도 다양하다.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위원회 등), 민간단체, 기업, 학교나 지역주민이 조직한 NPO들이 대부분이다. 산촌유학생들은 크게 네가지 방식으로 농촌에서 산촌유학을 실시한다. 해마다 연초에 모집해서 연 단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표 1).

2) 일본 산촌유학 시스템과 현황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으로 산촌유학이 행해지고 있다(그림 1).

(1) 학교

산촌유학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소규모 학교로, 대부분 학년당 하나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어 섬세하고 세밀한 지도가 가능하다. 또

표 1. 일본 산촌유학의 형태

형 태	특 징
산촌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기간 또는 대부분을 산촌부모라고 불리는 시골 가정(농가)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그곳에서 지역학교에 통학하는 방식 ○농촌의 풍부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를 접할 수 있음 ○시골부모나 지역주민과의 만남도 깊고, 제2의 고향이라는 의식을 키울 수 있음
기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기간 또는 대부분을 기숙사(산촌유학센터)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거기서 지역학교에 통학하는 방식 ○숙식이 가능한 시설, 복수의 전문 활동가가 상주하면서 연간 자연체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시설 등 다양함 ○이 방식은 각 시설 운영자의 운영방식이나 방침에 따라 내용이 차별화됨 ○유학할 곳을 선택할 때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어떤 곳을 원하는지 잘 생각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
기숙 산촌부모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달에 약 1/3~1/2를 복수의 전문활동가가 상주하는 기숙사(산촌유학센터)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남은 기간은 시골부모 집에서 생활하고 그 지역의 학교에 통학하는 방식 ○연간 자연체험 교육과정이 짜여 있고 시골부모 집에서 생활하기도 해서 지역주민과 교류하거나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도 많음
가족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일부 또는 가족 모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의 학교에 통학하는 방식 ○빈집을 수리한 주택이나 공영주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다른 방식과는 달리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생활이 되기 쉬움 ○도시에서 살던 생활 그대로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음

출처: 생태산촌만들기모임, 2007, 산촌유학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1차년도 보고서



그림 1. 일본 산촌유학의 협력체계

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의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교직원은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산촌유학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2) 기숙사 또는 산촌부모

기숙사나 농가는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 장소로

써 매일 숙박을 하면서 농촌생활을 느낄 수 있는 산촌 유학생들의 「집」이다. 이곳은 휴일이나 방과 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일반 가정의 경우는 산촌부모가 아이들의 하루 생활을 도와주고 있고, 기숙사의 경우 지도원이나 기숙사어머니가 상주하여 아이들이 산촌유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3) 지역주민·단체

행정이나 학교 교직원, 마을대표 등 산촌유학을 실시하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산촌유학추진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유학생의 모집이나 지도,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의 교육위원회, 민간단체, 병원 등이 유학생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에서 산촌유학을 실시하는 학교의 지역적 분포와 재학생 수는 <표 2>와 같다.

일본에서 산촌유학을 실시하는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큐슈지역으로 67개교가 실시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35개교가 존재하는 홋카이도지역이다. 학교의 수에 비례하여 학생수도 큐슈지역(193명)

표 2. 일본의 지역별 학교수 및 재학생수

(단위: 명, %)

지역	항목	학교 수	학생 수	한 학교당 입학 학생수 비율
홋카이도(北海道)		35	151	4.3
도호쿠(東北)		7	14	2.0
칸토우(關東)		9	29	3.2
츄우부(中部)		20	127	6.4
킨키(近畿)		19	62	3.3
츄고쿠(中國)		4	32	8.0
시코쿠(四國)		14	69	4.9
큐슈(九州)		67	193	2.9
합 계		175	677	3.9

출처: 日本全國山村留學協會, 2009, 平成20年度山村留學データバンク

표 3. 2005년~2008년의 초중학생별 참가자수의 추이

(단위: 명)

년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초등학생	552	586	446	422
중학생	256	220	243	255
합계	808	806	689	677

출처: 日本全國山村留學協會, 2009, 平成20年度山村留學データバンク

표 4. 학년별 참가자수

(단위: 명, %)

구 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전 체
남자	4	12	30	47	74	72	39	61	44	383(58.4)
여자	9	13	35	36	48	37	27	33	35	273(41.6)
합계	13	25	65	83	122	109	66	94	79	656(100.0)

출처: 財団法人 育てる会, 2008, 3, 全国の山村留学実態調査報告
 *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21명은 제외함

과 홋카이도지역(151명)이 가장 많다. 하지만 한 학교당 참가학생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추고쿠(中國)지역이 8.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추우부(中部)지역이 6.4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도 산촌유학 실시 학교수, 참가자수는 모두 2007년도와 거의 비슷하였다. 초등학생은 2007년도보다 24명 감소하였고, 중학생은 12명 증가하였다. 최근 산촌유학의 참가자는 800여명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참가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초등학생 140명 감소, 중학생 23명 증가). 2008년도에는 초등학생이 감소하고 중학생

은 약간 증가했다(표 3).

참가자의 성별을 따져보면 남자가 56.6%, 여자가 40.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남자의 비율과 여자의 비율의 차이가 가장 많은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저학년 층은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다(표 4).

산촌유학 참가자를 학년별로 인원수가 많은 순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 122명(18.0%), 초등학교 6학년 109명(16.1%), 중학교 2학년 94명(13.9%), 초등학교 4학년 83명(12.3%)의 순서가

표 5. 거주형태별 학년별 참가자수

(단위: 명, %)

구 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불명	전 체
산촌부모	1	4	15	28	42	34	10	25	15	6	180(26.6)
기숙사	0	5	13	24	29	24	29	38	45	12	219(32.3)
기숙 산촌부모 병행	0	2	6	13	20	21	15	17	11	0	105(15.5)
가족유학	12	14	31	18	31	30	12	14	8	3	173(25.6)
합 계	13 (1.9)	25 (3.7)	65 (9.6)	83 (12.3)	122 (18.0)	109 (16.1)	66 (9.7)	94 (13.9)	79 (11.7)	21 (3.1)	677 (100.0)

출처: 日本全國山村留學協會, 2009, 平成20年度山村留學データバンク

표 6. 지역별 산촌유학생의 거주형태

(단위: 명, %)

거주형태	홋카이도 (北海道)	토호쿠 (東北)	칸토우 (關東)	추우부 (中部)	킨키 (近畿)	추고쿠 (中國)	시코쿠 (四國)	큐슈 (九州)	전 체
산촌부모	38	1	0	0	9	0	0	132	180 (26.6)
기숙사	26	9	18	53	14	17	39	43	219 (32.3)
기숙 산촌부모 병행	0	4	0	59	20	15	0	7	105 (15.5)
가족유학	87	0	11	15	19	0	30	11	173 (25.6)
합 계	151 (22.3)	14 (2.1)	29 (4.3)	127 (18.8)	62 (9.2)	32 (4.7)	69 (10.2)	193 (28.5)	677 (100.0)

출처: 日本全國山村留學協會, 2009, 平成20年度山村留學データバンク

된다. 산촌유학생의 거주 형태별로 보면 산촌부모 형태가 초등학생의 비율이 68.9%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유학 형태도 초등학생의 비율이 78.6%를 차지하고 있다. 기숙사 형태는 중학생의 비율이 반 이상인 54%를 차지한다(표 5).

산촌부모 형태는 180명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고 기숙사 형태는 219명(32.3%), 기숙산촌부모 병행 형태가 105명(15.5%), 가족유학 형태가 173명(25.6%)를 차지하고 있다. 산촌유학생의 거주형태를 지역별로 보면 북해도지역은 가족 형태가 58%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구주지방은 산촌부모 형태가 6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표 6).

산촌유학 참가자수는 매년 증가하였지만 2003년을 전후로 절정을 이루었다가 2007년도부터 대폭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03년에 비하여 산촌부모형태가 70명, 기숙사 형태는 30명, 가족유학형태는 50명 전후로 감소하였고 기숙사·산촌유학 병행형태는 증가하였다(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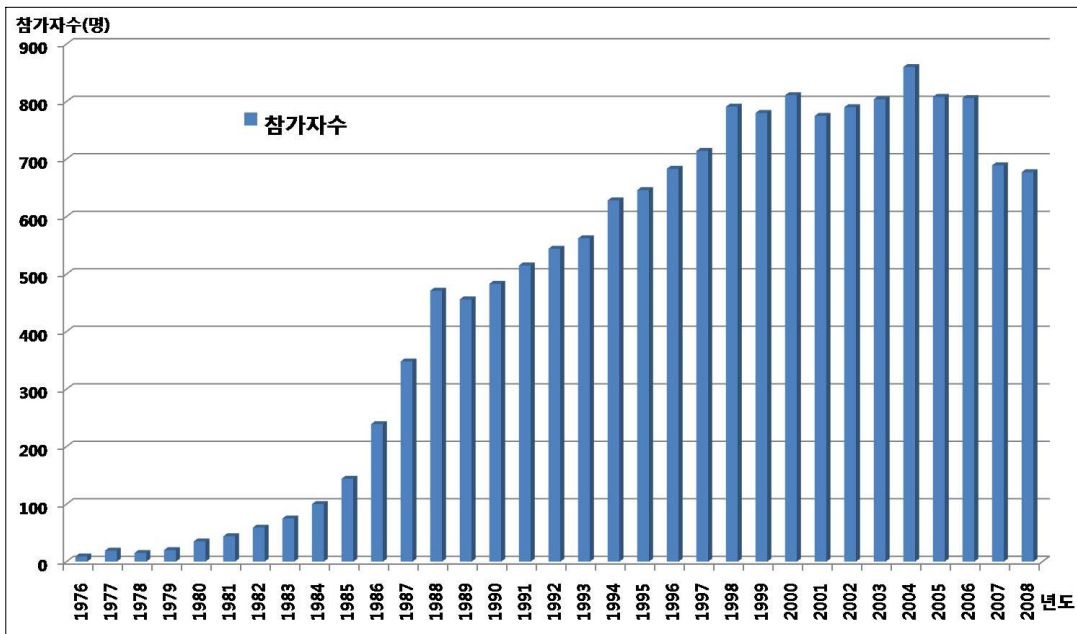
산촌유학에 참가하는 학생은 산촌유학을 실시하는 학교의 증가에 따라 1985년 무렵부터 현저하게 증가하여 1998년도에는 791명을 기록하여 그 후 800명 전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00명 이상 감소하고 2008년도는 2007년도와 비슷한 수를 나타내고

표 7. 1983년~2008년의 거주형태별 참가자수의 추이

(단위: 명, %)

	산촌부모	기숙사	기숙사 산촌부모 병행	가족유학
1983년	35(3.4)	0(0.0)	40(8.3)	0(0.0)
1988년	166(16.2)	208(18.1)	75(15.6)	22(3.2)
1993년	172(16.8)	215(18.7)	93(19.3)	80(11.6)
1998년	219(21.4)	258(22.4)	99(20.6)	190(27.6)
2003년	251(24.5)	251(21.8)	79(16.4)	223(32.4)
2008년	180(17.6)	219(19.0)	95(19.8)	173(25.1)

출처: 日本全國山村留學協會, 2009, 平成20年度山村留學データベース



출처: 日本全國山村留學協會, 2009, 平成20年度山村留學データベース

그림 2. 일본 산촌유학 참가자 수의 추이(1976년~2008년)

있다(그림 2). 2007년도부터 산촌유학참가자 수의 감소요인은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학생의 참가자수가 소폭 증가하였지만, 초등학생의 참가자수가 대폭 감소한 점이라 사료된다. 이는 우선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산촌유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산촌유학 참가자수의 증가 및 유지에 영향을 주었지만, 2007년부터는 그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생 신입참가자수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중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산촌유학의 참가로 인해 그 수가 유지되었다고 사료된다.

3. 일본 산촌유학 사례 및 시사점

1) 홋카이도(北海道) 메무로초(芽室町) 카미비세이(上美生) 지역

(1) 산촌유학의 개시와 실적

① 카미비세이 지역의 학교 통폐합의 역사

메무로초 카미비세이 지역의 산촌유학을 실시한 계기는 카미비세이 지역 초중학교의 역사에서 시작된다. 카미비세이 지역의 산촌유학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및 농산촌의 과소화 등에 따른 아동 및 학생수의 감소에 의한 초·중학교 통폐합 문제가 그 배경에 있다.

카미비세이 초등학교는 1958년에 6개 학급, 213명의 아동이 재학중이었지만, 불과 20년 후에 아동수가 49명까지 감소하여 4학급만이 남게 되었다. 이 때 오마베츠(雄馬別)초등학교의 아동수는 불과 11명이 되어 독립적인 학교로 유지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이에 메무로초 교육위원회는 1981년에 양학교가 합병하여 신생 카미비세이 초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카미비세이 중학교는 1947년에 카미비세이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안정적인 학생수의 증가를 보여 144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었으나, 급속히 학생의 수가 줄어들어 5년 후에는 7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카미비세이 지역은 수차례의 학교 통·폐합의 위기를 지역 주민의 반대로 극복해왔다. 카미비세이 지역은 메무로초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지역에는 경찰, 우편, 소방서나 동사무소 출장소, 탁아소 등이 위치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한 자립적 성격과 공동체 의식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일련의 초중학교 존속에 대한 논의와 「카미비세이 커뮤니티」 형성의 흐름 속에서 주민 전체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구상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산촌유학제도의 구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② 산촌유학의 개시와 모습

1997년에 산촌유학 제도가 개시되어 첫째는 산촌부모 산촌유학생, 가족 유학생 각각 2명씩이 신청하였다. 그 후, 1998년에 센터 유학의 거주 시설이 되는 고향 교류 센터 「야마나미(やまなみ)」가 건립되었다. 이로써 카미비세이 지역의 산촌유학 제도는 아이만 유학하여 「야마나미」에서 생활하는 센터 유학과 마을에 준비되어 있는 가족 전용주택·공영 주택에 부모와 함께 유학하는 가족유학의 두가지 형태로 실시되게 되었다.

<표 8>는 「산촌협회」설립 이후의 산촌유학생의 추이를 나타내는 표이다.

(2) 산촌유학 추진협의회(산촌협회)의 구성과 활동
메무로초 카미비세이 지역에서는 전세대가 PTA의 회원으로 지역전체가 학교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심이 산촌유학 제도로의 실천을 도모하여 산촌협회가 설립되었다. 「지역전체

표 8. 카미비세이 지역 산촌유학생의 추이

(단위: 명)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누적인수	실인수
센터유학	0	5	8	7	6	6	4	5	7	7	9	7	71	38
가족유학	2	2	2	7	6	6	7	6	4	6	8	5	61	21
합계	2	7	10	14	12	12	11	11	11	13	17	12	132	59

출처: 伊藤健治 外, 2009

가 초·중학교의 존속을 위하여 산촌유학생을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으로 PTA뿐만 아니라 카미비세이 지역의 전세대가 산촌협회의 회원이 되었다.

산촌협회의 활동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 산촌유학생의 모집 활동과 유학생과 지역의 교류를 도모하는 사업 활동이 있다. 모집 활동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산촌유학의 정보를 제공하는 「산촌협회 블로그」나 센터유학생의 생활 모습을 매주 갱신하는 「야마나미 소식」 등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촌유학생과 지역의 교류를 위한 사업 활동으로는 비세이강(美生川)의 뗏목타기체험, 승마체험, 홈스테이에 의한 농업체험, 지역의 농업 관련 시설이나 공장 등을 견학하는 마을 탐험, 스키 교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유학생만이 아니라 현지의 아이들도 참가하여 유학생과 현지 학생 간의 폭넓고 깊은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뗏목타기체험은 아이와 보호자 등 약 100명이 참가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인구 600명 남짓의 카미비세이 지역을 알리는 큰 이벤트가 되고 있다. 또한 초·중학교의 행사도 원래는 학생들만의 행사로 전략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산촌협회와 PTA가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3) 산촌유학제도의 운영과 현상

카미비세이 지역의 산촌유학제도는 산촌협회라는 지역주민 조직의 주도로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메무로쵸에서 상당부분 지원을 받고 있다.

센터유학의 경우 유학생은 식비·잡비·방세 등으로 1개월에 약 5만엔을 부담하게 된다. 「야마나미」의 시설유지관리 경비는 메무로쵸 경제부 농림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야마나미」의 인건비 및 전국 산촌유학협회부담금, 카미비세이 지역 산촌유학 추진협의회(산촌협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메무로쵸 교육위원회의 학교교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다. 산촌유학의 모집활동 및 사업활동은 기본적으로 메무로쵸의 보조금으로 실시하고 있어 산촌협회의 회원은 회비 등을 납부하

지는 않는다. 즉, 지역에서 산촌유학의 조성과 운영을 자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유학의 경우는 가족전용주택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유학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택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가족유학 참가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촌협회에서는 주택증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4) 카미비세이 지역에 있어서의 산촌 유학 제도의 성과와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미비세이 지역의 산촌유학 제도 실시의 직접적인 계기는 카미비세이 초·중학교의 통·폐합 문제였다. 당초의 목적인 학교의 존속이나 학생수 확보 등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다. 매년 학생의 감소로 인한 초·중학교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산촌유학제도를 실시하여 보다 좋은 학습 환경으로 정비되었다. 또한 산촌유학제도로 인하여 이주자도 증가하는 등 산촌유학제도가 지역의 활성화로 이끄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카미비세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즉, 행정과의 관계, 유학생의 확보, 지역주민의 부담, 이전 학교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던 유학생들의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카미비세이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① 행정의 재정 예산과 지원

카미비세이 지역에서는 학교운영과 행정사항이 지역주민 주도의 활동에 제휴·협력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대로 센터 유학의 시설유지관리 경비는 메무로쵸 경제부 농림과에서 지원하고 센터의 인건비 및 전국 산촌유학협회부담금, 카미비세이 지역 산촌유학 추진협의회(산촌협회)에의 보조금은 메무로쵸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산촌유학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② 산촌유학제도의 홍보·모집 활동

유학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홍보·모집 활동은 산촌유학 추진제도의 유지·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이다. 카미비세이 지역에서 산촌유학 희망자의 응모는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우선 모집 활동에 있어 행정의 지원 아래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카미비세이 지역의 산촌협회에 의한 모집 활동은 기본적으로 메무로쵸의 보조금으로 실시되었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다. 그 외에도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들 수 있다. 많은 주민이 토카치(十勝)평야에서 대규모 농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혼슈의 대도시권에 사는 도시민들로 하여금 홋카이도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메무로쵸의 중심부까지 약 35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도시민에게 민감한 사항인 의료시설 부분도 중심부에 양질의 의료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안정적인 산촌유학생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었다.

③ 산촌부모 가정의 부담

산촌부모와 센터유학의 두 가지 형태에 의해서 실시됨에 따라 산촌유학 제도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위해 지역주민 주도에 의해 조직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 전체가 산촌협회나 PTA에 참가하여 산촌유학을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귀속의식과 공동체의식, 지역정체성의 확립으로 인하여 정립되게 되었다. 산촌유학 제도는 지역주민에 의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에 주의해야 한다.

④ 이전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던 유학생의 증가

비행이나 따돌림·무단결석 등의 경험을 갖고 있는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산촌유학에 대한 정보나 목적의식을 가지지 않은 채로 아이를 맡겨버리는 부모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학생 선발 시에 다양한 면담, 사전 현지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유학생의 확보와 양질의 교

육환경, 지역과 도시민의 교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나가노현(中野縣) 오오마치시(大町市) 야사카초(八坂町)

일본 산촌유학의 발상지인 나가노현 오오마치시 야사카초에는 오오카(大岡)센터에서 주관하는 센터유학과 마을 주민의 가정집에서 주관하는 산촌부모유학의 두 가지 형태를 실시하고 있다.

오오카센터에는 사무실, 보건실, 도서관, 공부방(학교 관련 교재와 준비물 두는 곳), 아이들 숙소(다다미방), 욕실, 담화실(부모와 교류하는 방), 주방, 다목적실(식당과 강당으로 공동사용, 다다미방), 세탁실(세탁기 3대), 화장실, 숙소 등 유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필요한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1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각 지역마다 예산 5억 엔이 편성되어 각 지역에서 산촌유학센터를 짓게 되었다. 오오카센터의 설립 조건은 ‘중산간 지구 지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이 해당되면서 산촌유학센터가 순조롭게 설립되었다.

산촌유학을 위한 비용은 초등학생은 매달 69,000엔, 중학생은 72,000엔이 필요하다. 급식비나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아이들도 산촌유학생과 같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아이들과 도시아이들 간의 교류가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가족과 가족이 교류를 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이 지역은 산촌유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교류를 하기도 하는데 브라질, 태국과 한국의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산촌부모유학의 경우에는 소다테루회를 통하여 산촌유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단기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장기유학으로 변환하는 경우가 많다. 산촌유학생들은 산촌부모님들을 엄마, 아빠라 부르며 친근하게 지내기도 하고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하며 실제 농촌에서의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산촌부모들은 아이들의 가족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깊고 진실된 교류로 사람들은 도

시로 돌아간 후에도 연락을 한다거나 지역에 도움을 주거나 산촌유학 후배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4. 한국 산촌유학의 현황과 사례

1) 국내산촌유학의 현황

국내의 경우 산촌유학은 2006년에 김용택시인이 재직하던 임실 덕치초등학교의 섬진강 참 좋은 학교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이후에 생긴 고산산촌유학센터, 철딱서니학교, 한드미마을은 마을회관 등을 기숙사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모집과 프로그램개발 등에 있어 '귀농운동본부'와 환경운동단체인 '생태산촌만들기모임'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촌유학이 실험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촌유학의 형태로는 가족형, 센터형, 농가형 등이 있다. 임실 덕치초등학교의 경우는 산촌유학을 하려면 부모가 함께 내려와 생활해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전학 온 학생들은 주로 어머니와 함께 이사해 생활하고 있다. 이른바 가족형 산촌유

학사례라 할 수 있다.

센터형은 대부분의 기간을 기숙사(유학센터)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거기서 지역학교에 통학하는 형태이다. 현재 국내 최초 센터형인 전북완주의 고산산촌유학센터를 필두로 강원양구·양양의 철딱서니학교, 충북 단양의 한드미마을이 있다. 센터형의 경우에는 숙식이 가능한 시설에서 유학생과 복수의 전문활동가가 상주하면서 연간 자연체험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대안교육적인 운영방침을 갖고 관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형은 '산촌부모'라고 불리는 시골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지역학교에 통학하는 형태이다. 농가형의 경우 농어촌의 풍부한 자연 뿐만 아니라 산촌부모와의 생활을 통해 농촌의 따뜻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시골부모나 지역주민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곳이 제2의고향이라는 의식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이나 프로그램 다양성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농가형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산촌유학, 경남 함양 마천면 산촌유학이 대표적이다. 경북 상주의 경우 귀농자

표 9. 산촌유학 실시현황

유형	이름	위치	특징	비용	비고
센터형	고산 산촌유학센터	전북 완주군 고산면	명상과 요가 프로그램 운영	입주비 100만원, 월 69만원(별도예치금)	cafe.daum.net/Confucian
	철딱서니학교	강원도 양양군 서면	어린이 문화단체 '또랑'에서 운영	입학금 100만원, 월 70만원	www.ddorang.net
	한드미 농촌유학센터	충북 단양군 가곡면 한드미마을	1년이상 장기	입소비 100만원, 월 60만원	cafe.daum.net/handemy
	소호 산촌유학센터	울주군 상북면	단장기형	월 60만원	http://cafe.daum.net/soho-sanchon/
농가형	봄바람 산촌유학	경남 함양군 서하면	교류학습 중심의 단기형	월 55만원	blog.naver.com/kwoohee
	시골살이 아이들	경북 예천군 용문면	장기형 산촌유학	월 60만원	blog.naver.com/snsclick
	햇살과 거닐며 놀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	단장기형	월 45만원	blog.naver.com/hieri
가족형	전북임실 덕치초등학교	전북 임실군 덕치면	가족 중 한명 이상 함께 귀촌해야함. 1년 이상	입학금, 월 납부금 없음	www.duckchi.es.kr

를 중심으로 5개 농가가 손잡고, 인근 화북 초등학교와 함께 산촌유학을 하고 있다. 경남 함양은 마천면 창원마을 햇살네 농가를 중심으로 인근마을 농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양양 오색(설악산자연학교), 진안(용담송풍초교), 남원 산내, 봉화재산(내일학교), 경주 양북 범곡리, 양산 배내골 등에서도 산촌유학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촌유학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촌유학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이상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지자체나 교육당국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센터형·장기형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산촌유학을 시도하는 곳의 대부분이 초기에는 교류학습으로 인정돼 보통 1~3개월은 전학 절차 없이 다른 지역 학교에서 교류학습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산촌유학 프로그램은 큰 부담 없이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단기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고산산촌유학센터

2007년 2월에 출범한 고산산촌유학센터는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기숙하는 ‘센터형’산촌유학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다. 고산산촌유학센터는 요가와 명상 미술과 음악 같은 예술치유 등 마음수련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황토흙집 짓기, 우렁이 논농사, 옷 만들기과 천연염색 효소 만들기, 과수농사, 산나물채취 등 자연 속에서 스스로 일하고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고산산촌유학센터 강령의 취지문은 ‘아이들은 자연이다’로 시작한다. 조태경소장은 센터의 교육에 대해 “아무 프로그램도 없다. 그냥 숲속에서 야영하며 부엉이 소리도 듣고 바람소리도 듣고 별도 보고... 굳이 뭘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스스로 정화되고 치유되고 성장한다.”고 말한다. 아이들과 자연의 무한한 힘에 대한 신뢰야말로 고산산촌유학의 출발점이다.

아토피가 심해서, 따돌림을 당해서, 너무 산만

해서, 시골이 좋아서 등 이곳을 찾은 아이들의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학교는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봉동초등학교 양화분교를 다닌다.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23명이 전부인 작은 학교이다. 이곳에 고산산촌유학센터가 들어서기 직전까지는 전북 지역 폐교1순위 학교로 꼽힐 만큼 존재자체가 위태로웠다. 그러나 이제는 늘어난 유학생 덕분에 작은 학교에 활기가 넘친다. 무엇보다 지역아이들은 유학생들 덕분에 제대로 된 팀을 짜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즐겁다. 학교도 고산산촌유학센터와 뜻을 같이하며 국악, 만화, 연극, 사물놀이, 영어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비롯해, 개천과 산에 서식하는 생물 관찰일기 쓰기, 고구마 가꾸기 등 직접 체험하는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산산촌유학센터」는 「철딱서니학교」와 함께 2006년부터 산촌유학을 준비하였고, 2007년 3월 10일부터 10명의 산촌유학생들을 선발하여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아토피, 비만, 만성비염, 학교부적응, 집단 따돌림 피해자(왕따), 사설학원 혐오증 등 정신·신체적인 상처와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컴퓨터·TV중독·오락 등 건전하지 못한 습관에 길들여진 아이들도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하며 번잡한 일상과 도시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다. 이 같은 분위기가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센터는 학생들이 봄비자 유학생 선정기준 절차를 강화했다. 센터생활 강령에 대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만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10여명의 아이들이 7명의 선생님(아이들은 센터선생님을 삼촌, 이모라고 부른다.)과 자원봉사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함께 먹고 자며 산촌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까지 중·단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다. 보통 20여명이 일주일 단위로 새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산촌유학생생활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다. 유학생생활은 최대한 자연 속에서 먹고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위적 환경과 음식물은 최대한 배제한다.

고산산촌유학센터는 국내에서 처음 장기체류형 산촌유학형태로 시도된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

다. 지자체나 교육 당국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산촌유학에 대한 이해 확산, 산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메뉴얼 개발 등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했다. 또 고산산촌유학센터는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보조금 등 여타의 후원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직 학부모님의 유학비에 의존하여 2009년까지 2년차 자체운영을 해왔다. 고산산촌유학센터는 ‘농촌사회의 경제활성화 및 시골 공교육의 질 향상, 새로운 방식의 대안교육 운동’으로서의 길 창조’라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어려운 재정상황도 잘 극복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고산산촌유학센터는 최근에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아 약 10여 명의 교사월급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를 계기로 센터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농촌형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촌형 일자리창출, 산촌유학 운영모형 개발, 산촌유학 활동가를 위한 연수교육, 지역통합교육, 도농교류촉진 등이 그것이다.

조태경소장은 한국사회에 산촌유학의 개념을 보급하고 이해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과 함께 고산산촌유학센터를 일본의 소다테루회와 같이 한국 산촌유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심이 대단하다. 농촌형 사회적 기업으로 센터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시켜 지역경제 및 도농교류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이들의 최우선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고산산촌유학센터, 지역학교, 지역농가 등 3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들 예정이다(그림 3).



출처: 이민수, 2009, 전북발전포럼

그림 3. 고산산촌유학센터의 협력체계

3) 경상남도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975번지에 위치한 경상남도 산촌유학교육원은 경남대지초등학교의 폐교부지에 설립한 학교로, ‘맑고 슬기롭게 푸르고 정답게’라는 교훈아래 과밀학급의 도시 아동들에게 합숙을 하며 다양한 농촌체험학습활동을 신장하기 위해 1997년 11월에 설립되었다(경남교육청, 200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112호(05.6.13)에 의거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생들에게 산촌과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며,

표 10. 연도별 교육활동 실적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수료생 (명)	2,988	3,244	4,460	4,146	3,328	3,442	3,363	3,128	3,050	4,041	35,190
수료 기수	25	27	28	29	28	29	29	27	27	41	290
교육청 (개)	20	21	22	21	20	20	20	20	20	20	204
학교수 (교)	113	130	129	163	122	133	137	101	125	135	1,288

출처: 경상남도 산촌유학교육원 2010운영계획서(<http://www.sanchon.or.kr/>)

표 11.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

활동명	영역	활동내용	시간 배당	비고
체험 활동	산촌생활체험	• 별자리 관찰 • 봄나물 뜯기 • 애완곤충체험 • 밥줍기 • 감국차 만들기 • 농사체험	5	
예절 심성 활동	자치 활동	• 담임과의 시간 • 친교의 시간 • 산촌문화 발표회 • 우정 나누기 • 청소활동	3	
	전통문화 계승	• 도예 • 전통음악 • 전통음식 • 전통공예 • 전래놀이 • 전통예절 • 야영체험 • 선비정신교육	4	
	교육 활동	• 활동과정 및 생활 안내 • 만남의 시간 • 마음 다듬기 • 마술체험 • 입소식 • 수료식 • 아침활동 • 촛불의식 • 명상의 시간 • 감상문 쓰기 • 안전 대피훈련	8	
지역 문화 탐구 활동	조사·탐구 활동	• 신전고개 • 구로정 • 약초시험장 • 안의향교	3	
	발표 활동	• 산촌 문화 발표회 - 선택체험학습활동 결과 발표 - 탐사활동 결과 발표	2	
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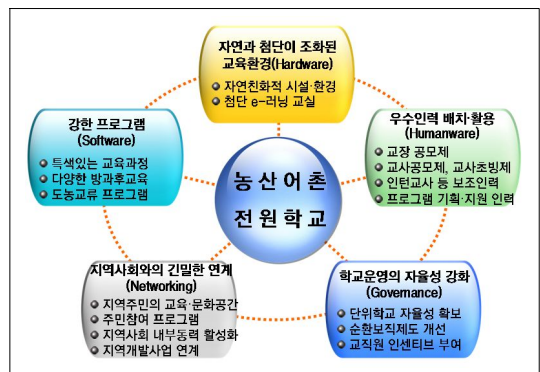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 산촌유학교육원 2010운영계획서(<http://www.sanchon.or.kr/>)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화로운 심성개발과 환경보전의식을 기르며 전통문화 계승에 힘쓴다.’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하였고, 교육중점은 바른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인성 교육 강화, 전통문화정신제고를 위한 지도 강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강화이다. 2009년 12월까지 총 35,19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1,288개교가 참여하였으며 290기수가 수료하였다. 교육기간은 2박 3일이며 주2회를 운영하고 있고, 대상은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 5학년 및 기타학생으로 편성은 5개 반 120명이다. 부대시설은 건물, 운동장, 정원, 공연장, 주차장, 진입도로, 실습지, 교직원 숙소로 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체험활동, 예절심성활동, 지역문화 탐구활동으로 나뉘며 이는 다시 산촌생활체험, 자치활동, 전통문화계승, 교육활동, 조사·탐구 활동, 발표 활동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과 연계한 교육내용이나 활동은 전무하다. 이는 경상남도 산촌유학교육원이 다른 산촌유학을 실시하는 곳과는 다른 수련원 형태의 교육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농산어촌의 학생수와 학교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에 초등학교 77개교와 중학교 33개를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하였다.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어 등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자율학교이다. 또한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3.10

그림 4. 농산어촌 전원학교 모델

표 12. 도교육청별 지정현황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교 수	17	10	7	18	13	16	12	15	2	11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3.10

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 인구의 귀향을 유도한다. 학교 규모와 여건에 따라 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두 지원하는 학교,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는 학교,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하는 학교로 구분되며, 선정된 모든 학교에는 첨단 e-러닝 교실과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는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농산어촌 전원학교의 학생들은 첨단 e-러닝교실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좋은 교육자료를 제공받아 학습하고, 교실 밖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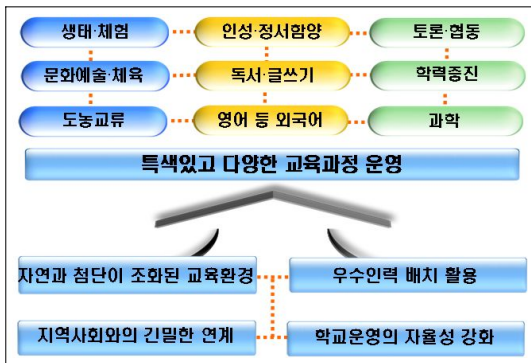
체험활동에서도 무선 인터넷과 개인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도(道)교육청 소속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의 면 소재 초·중학교 중 학생수가 61~600명인 학교의 약 10%인 총 110교가 지정되었다(표 12).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의 내용은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특색있는 정규교육과정, 다양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발굴하는 것이다. 또한 자율적인 우수인력 배치와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그림 5).

일본과 한국의 산촌유학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초·중학교의 통·폐합이 계기가 되어 산촌유학이 실시되었지만 한국의 경우 참고육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의 주된 산촌유학의 형태는 센터 유학과 가족 유학이지만, 한국의 주된 형태는 농가형(산촌부모)과 센터유학이다. 산촌유학조직은 일본과 한국이 서로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촌유학을 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3.10

그림 5.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모형

표 13. 일본과 한국의 산촌유학 비교

	일 본	한 국
산촌유학의 실시 계기	초·중학교의 통·폐합	귀농 및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의 중요성 부각
주된 산촌유학의 형태	센터유학과 가족유학	농가형(산촌부모), 센터유학
산촌유학조직의 유무	유 (지역주민들로 구성)	무 (단, 산촌유학에 관심이 있거나 산촌유학을 실시하는 구성원들의 모임은 있음)
산촌유학의 시행주체	지역주민	개인
산촌유학조직의 운영지원	지자체의 지원	지원 없음
홍보 및 모집 활동	지자체의 지원아래 인터넷활용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홍보방법 등을 개발하여 활동

행하는 주체도 일본은 지역주민이고 한국은 개인으로 산촌유학조직의 역할이 영향을 주는 듯하다. 운영에 있어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일본의 경우가 좀더 활성화 되어 있고 이러한 지원으로 홍보 활동 역시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산촌유학 사례를 통한 도농교류의 효과 및 시사점

일본의 사례들은 지역주민, 지자체, 산촌유학센터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산촌유학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간 문제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려보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시도되었고 그것이 오늘의 성공사례가 되었다.

〈그림 5〉는 2003년에 「소다테루회」가 전국 9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다. 그림을 통하여 산촌유학이 지역학생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지역 활성화 효과, 지역 진흥 효과를 알 수 있다. 산촌유학생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학급이 활성화되거나 복식 학급이 줄어들거나 학교가 폐교되지 않고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산촌유학으로 인해 지역의 행사도 활성화되어 지역에 까지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산촌유학을 통하여 지역에 학교가 존재하고 지역에 아이들이 있는 점이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에 아이들이 많아지면 학교가 존재하게 되고 학교가 존재함으로써 지역의 행사도 활발해지는 것이다. 또, 산촌유학생 뿐만 아니라, 가족 유학으로 이주해온 유학생의 부모도 지역에서 생활하여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지역에서 실시하는 행사도 충실해지며 이로 인해 교류는 더욱 활발해진다. 이처럼 지역의 활성화는 지역에 학교가 존속하고 많은 아이들이 생활을 하며, 정주 인구가 많은 것이 큰 요소가 된다. 현지의 아이들에게도 다른 도시의 문화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과 교류를 하며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문화와 사고를 도시의 그것과 비교하며 농촌의 훌륭함을 느끼고 도시에서 배울 수 있는 문화를 접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또한 산촌유학을 통하여 자연과 접촉하고 농업을 체험하면서 기간산업인 농림어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산촌유학을 통한 도·농교류의 효과는 지역학생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지역 활성화 효과, 그리고 지역 진흥 효과의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산촌유학은 도시문화를 겪은 산촌유학생을 통해 지역학생의 농촌에서의 문화와 생활방식,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산촌유학생의 유입으로 학교는 존속하게 되고 지역의 행사를 활성화시켜 지역을 활기치게 해주며, 가족유학으로 이주한 도시의 가족들로 인해 지역이 도시와 교류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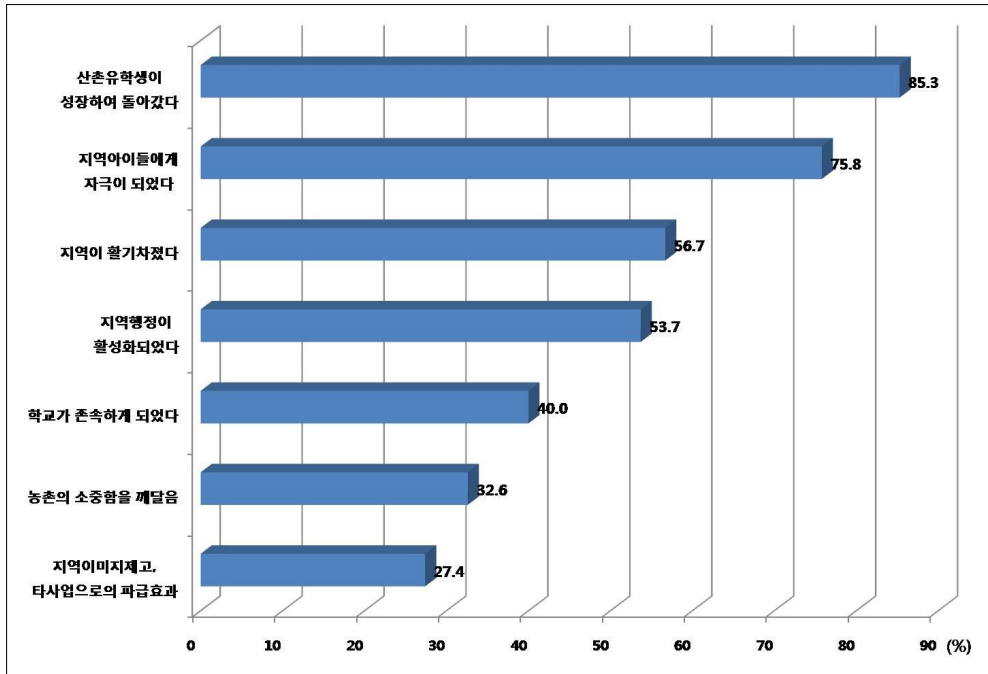
일본과 한국의 산촌유학의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의 산촌유학 교육프로그램에는 전체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방학이 되면 산촌유학센터에서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실시된다. 단기 산촌유학이나 자연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자연체험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산촌유학」이 왜 소중한지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이로 인하여 고령화, 과소화되어 있는 농촌으로 귀농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둘째, 산촌유학이 지자체와 지역마을, 그리고 지역학교와의 연계가 잘 되어 있다. 이는 산촌유학센터와 학교, 지자체,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산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산촌유학으로 인하여 지역이 단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나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지역학교와 산촌유학센터간의 역할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 공교육기관인 지역학교는 기존의 교육방식을 준수하는 한편 방과후의 프로그램을 산촌유학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산촌유학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또한 기존의 공교육기관은 그대로 두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이 가능한 마을센터를 만들어 마을 중심에 있으면서 농촌사회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물론, 농촌간 문화교류의 인프라가 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산촌유학에 대한 관심이 한시적으로 고조되었던 점에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출처: 梅原 沙弥香, 2007

그림 6. 산촌유학 운영단체에서 본 성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그림 2>와 같이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산촌유학생의 참가수가 최고조를 이루었다가 2007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산촌유학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미비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6. 결론

일본의 산촌유학은 원래 가정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출발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일본 교육은 무척 치열한 입시위주 교육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했다.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본 결과,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었던 생활체험, 자연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全国山村留学協會通信, 2001).

일본의 동거가족들 중 전체가족이 다양한 형태의 산촌유학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체험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산촌유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산촌유학 교육체도가 30년 동안 진행되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어 일본전역에 확산되었고, 오늘의 성공적인 하나의 교육체도로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고 있다.

일본 산촌유학의 운영형태는 주말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미니산촌유학, 봄·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하여 3일~18일간 행해지는 단기산촌유학,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장기산촌유학으로 구분된다. 그 내용은 유학센터와 산촌부모가 일체가 되어 지도하는 혼합형식,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학센터에서 학교에 다니는 센터형식, 산촌부모 가정에서 학교에 통학하는 산촌부모유학형식, 지자체의 지원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가족이주형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운영주체와 방법은 문부성 소관 재단 법인화하여 운영하는 형태와 지방 자치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 기업이 운영하는 형태,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가 있으며 각 형태별로 가족이 일정기간 같이 이주하는 ‘가족형 산촌유학’과 학생만이 유학하는 ‘유학형’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방학을 이

용한 다양한 단기 테마형이 있어 학생들의 선택 폭은 넓은 편이다(신정희, 2005).

이러한 산촌유학은 자연과 어울려 지역의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보인다.

자연체험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전인교육 가능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테마별 특성화 교육으로 지방과 지역 간의 교육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장·단기 유학프로그램으로 교육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비용부담이 많아 지자체나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아직도 산촌유학에 대한 지역의 정서는 무관심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마을과의 교류를 다각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마을 주민을 선생님과 초빙하는 등의 적극적인 주민 참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생각했을 때 농가형의 경우, 대부분의 산촌부모들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지역의 아이들이 유입됨으로써 타지역의 문화도 유입되게 되는 데 문화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의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촌유학 구성요소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산촌유학을 시행하는 학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교육시설을 첨단정보화하여 주변의 폐교화 된 초·중등학교 시설을 학교생활 기숙사, 자연생태학습장, 문화예술체험 학습공간 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산어촌전원학교로 지정된 학교들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산촌유학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 구성요소들이 더욱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농촌실정으로 볼 때 산촌유학생을 일반 농가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농가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춘 어른이 있어야 한다.

되도록 그 지역에서 구성원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풀어가야겠지만, 산촌유학을 조직적으로 풀어가려면 젊고 정보획득에 능동적인 귀농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적 측면에 편중된 산촌유학만을 추구하지 않고 도농교류, 귀농, 지역활성화의 측면 등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태적 삶과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는 귀농자들과 지역민들이 산촌유학의 취지를 이해하고 운동 차원에서 함께 풀어가면 산촌유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역 이미지 발굴이 요구된다. 지자체는 도시보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대신 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차별성을 어필하고 지역이미지를 발굴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산촌유학생 가족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산촌유학생의 가족은 지역을 구성하는 새로운 구성원이자 다른 지역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다. 자연을 소중히 하고 전인교육, 예절교육이 특징인 산촌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촌유학의 구성요소 간의 긴밀한 관계정립이다. 새롭게 유입되는 타문화에 조속히 적응하고 수용하여 내실있는 산촌유학을 추진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처럼 산촌유학을 통한 도농교류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촌유학체제의 내실화, 지자체의 지원,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의 가치를 제고하고 농촌의 문화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농산촌에 체류하면서 자연체험이나 공동체체험을 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산촌유학을 단순히 지역학교 살리기와 농촌활성화 대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농산어촌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인간교육과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교류사업으로서 지역의 공공단체와 민간이 함께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문헌

강원발전연구원, 2008, 도농교류활성화 방안 연구.

- 경남교육청, 2000, 경남산촌유학학교요람, 2-3.
- 민들레, 2006, 생태적 감수성, 살면서 느끼고 기른 다-산촌유학 탐방 결과 보고서-, 2006 일본 산촌유학 현장을 가다.
- 산촌생태만들기, 200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종합보고서.
- 산촌생태만들기, 2007, 산촌유학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1차년도 보고서.
- 문영섭, 2007, 농촌의 어메니티자원 활용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낙헌, 2003, 도농교류와 농촌지역 발전, 강원발전연구원, 강원광장, 54, 65-72.
- 송미령, 2003,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농촌 어메니티 형성방안, 2003년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개최세미나: 그린투어리즘과 생활환경정비, 농업기반공사·새국토연구협의회.
- 신정희, 2005, 농·어촌 폐교 대응정책의 한·일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병찬, 2008, 농촌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충남 홍동지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3), 129-151.
- 이민수, 2009, 산촌유학, 전북발전포럼, 12, 48-56.
- 이상엽, 2003, 도농교류 체험학습의 대중적 확산 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3), 197-225.
- 최지훈 외, 2008, 일본사례를 통한 국내 산촌유학의 활성화 방안, 산림경제연구, 16(1), 25-40.
- 한상열, 2005, 도시민의 도농교류 선호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9(2), 29-35.
- 川前あゆみ, 2001, 山村留学と学校・地域づくり, 日本生活体験学習學會誌 創刊号, 93
- 梅原沙弥香, 2007, 山村留学とまちづくり—都市農村交流とまちづくりの観点から—, 北海道教育大学旭川校生涯教育課程コミュニティ計画コース学士論文.
- 伊藤健治 外, 2009, 過疎農山村の山村留学と地域づくり—北海道芽室町上美生地区のケース—, 公教育システム研究, 8, 56-72.
- 福岡縣水産林務部林政課, 2003, 都道府県だより—山村留学による地域の活性化, 林野時報, 50(4), 46-49.
- 財団法人 育てる会, 2009, 平成20年度事業報告書 <http://www.sodateru.or.jp/>
- 財団法人 育てる会, 2009, 平成22年度事業計画書 <http://www.sodateru.or.jp/>
- 財団法人 育てる会, 2008, 全国の山村留学実態調査報告 <http://www.sodateru.or.jp/>
- 日本全國山村留學協會, 2009, 平成20年度山村留学データバンク http://www.sanryukyo.net/blogn_plus/index.php
- 全国山村留學協會通信, 2001, 山村留学の町と村から, 7.

(집수: 2010.9.20, 수정: 2010.10.29, 채택: 2010.11.30)